

콩당보리축제, 아쉬움 속 폐막

우천으로 축소 진행... 시짓기 대회 등은 20~21일 예정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개최된 제18회 군산콩당보리축제가 빗속에 아쉬움을 내내 달래야 했다.

군산시는 지난 4일부터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뜰에서 제18회 군산콩당보리축제를 진행했다.

4일 첫날에는 개회식 및 각종부스, 먹거리 플리마켓, 이벤트존 등 큰 사고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5일과 6일 비로 인해 축제장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 무대행사, 농촌체험 홍보부스, 플리마켓, 이벤트존 등은 운영하지 못하고 먹거리 부스만 운영했다.

또, 5일 2시에 예정되었던 콩당보리 노래자랑 예선은 장소를 변경해 미성동 주민센터 3층 취미교실에서 식전 지역가수 지주의 공연을 시작으로 4시까지 실시했다.

6일 노래자랑 본선은 문창초등학교 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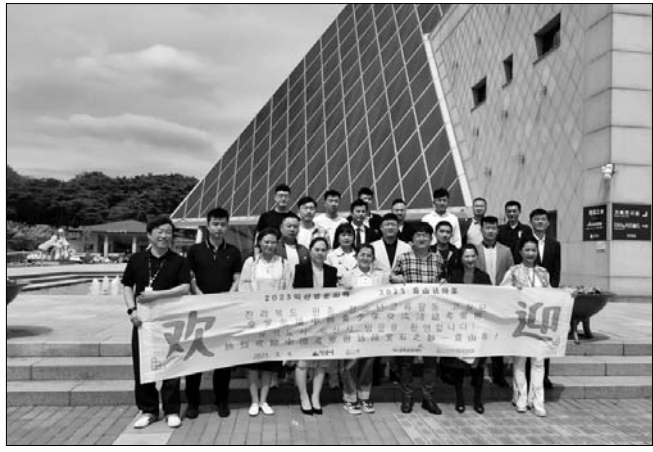
문창초등학교는 제1회 콩당보리축제를 시작한 곳으로 제18회 콩당보리축제도 문창초등학교에서 노래자랑 본선이 끝나고 오후 5시에 폐회식을 알렸다.

또한 5일 예정되었던 시짓기, 그림 그리기대회 등은 추후 오는 20일과 21

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금년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개최된 축제인 만큼 군산 대표 농특산물 혼합쌀보리와 농경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바탕으로 축제를 마련했다”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군산시민과 관광객이 기대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제를 위해 축제장 주변 14ha를 보리, 철쭉 등으로 경관 조성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상시 프로그램과 함께 날짜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한 바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의 문화체육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에 물꼬를 텄다.

한·중 문화교류 '물꼬'

익산시, 한·중 청소년문화체육교류 고찰단 익산 팸투어 실시

익산시가 지역의 문화체육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에 물꼬를 텄다.

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일 지역 일원에서 중국 특수목적관광 고찰팀(사전답사팀)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북도의 전북 특수목적관광(S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 여름 중국 청소년들의 방문을 앞두고 고찰팀(사전답사팀) 25명이 행사 개최지와 관광지 현장답사를 위해 마련됐다. 중국 청소년 3천200여명은 오는 7~8월 중 한중 문화교류와 한국문화체험 관광을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고찰팀은 왕궁보석테마관광지의 보석박물관과 다이노키즈월드를 시작으로 교육문화행사 시설을 보기 위해 익산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전라북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을 둘러봤다.

특히 보석박물관은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해 청소년 투어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소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팸투어 과정에서 지역 교육시설과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단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기점으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 글로벌대학30 활동 무대 중앙아시아까지

우즈베키스탄 코칸트대학교와 학생교류·취업연계형 현장실습 교육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의 코칸트대학교 국제학술 및 학생교류, 학생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글로벌대학으로서의 활동기반을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체결식은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됐고,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오정근 기획처장, 윤기창 지역개발연구소장과 코칸트대학교의 이성준 총장, 이스파르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2020년에 군산대학교와 코칸트대학교이 맺은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의 후속으로, 양교가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결과, 학생교류 및 현장실습교육 추진,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협약을 계기로 양교는 이공계 교육과정 지원,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복수학위제, 글로벌 혁신공유센터 운영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본 협약으로 양교는 이공계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통해 글로벌 현장실습 기회를 양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등 기업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전세 보증금·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익산시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이파트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과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층 내 집 마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규모가 더욱 확대된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택은 전세 보증금과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이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지난 달까지 20여건이 신청됐으며 일 평균 10회 이상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0% 이자를 지원한다.이자 지원은 2

년마다 연장신청을 하면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은행과 적극 협의하여 대출(가산)금리를 한시적으로 0.5% 인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자 3.0%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신용 익산시의원, 옹포곰개나루 발전 방안 모색

옹포곰개나루의 수상레저 시설 부족과 이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옹포곰개나루는 철인3종경기 등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익산시의회 신용 의원은 지난 2일 익산시 옹포면 옹포곰개나루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철인3종경기 선수단과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선수단은 옹포곰개나루의 설비 보완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의 관심을 요청했다.

선수단 감독은 “옹포곰개나루는 전국의 철인3종경기 선수단이 훈련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면서, “실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숙박시설도 없어 훈련 후 먼 거리를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전북 14개 시, 군 중 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가능 지역이 없다”며, “옹포곰개나루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을 비롯해 연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용 의원은 “옹포곰개나루는 금강이 흐르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환경이 갖춰진 만큼 각종 수상레저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참여자들은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 58명, 공공근로사업 66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시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7.03. ~ 2005.07.03.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지역경제 참여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배달의 명수' 군산콩당보리축제 홍보부스 운영

군산시장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신북동 국제마을 앞에서 열린 군산콩당보리축제 행사장에서 '배달의 명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다.

'배달의명수' 홍보부스 내에서는 축제장 방문객에게 배달의명수 홍보 전단지나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배달의명수를 알리고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했다.

SNS 팔로우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팔로우하면 돌리볼 게임 기회를 제공해 군산점뿐만 아니라, 군산향 디퓨저 등 다양한 경품과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배달의명수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군산시간여행축제장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적극적인 현장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8명 모집

군산시는 고용정책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 58명, 공공근로사업 66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시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7.03. ~ 2005.07.03.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지역경제 참여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